

조직 유연함 키우는 정의선… 이번엔 넥타이 풀다

〈현대차 부회장〉

현대차 ‘노타이 복장’ 도입 추진
추석연휴 전후 부서별 지침 전달

경직된 사내문화, 창의 사고 저해
편안한 분위기로 업무효율성 강화

비교적 보수적인 산업군으로 꼽히는
자동차업계가 ‘노타이 복장’ 도입을 준비
하며 격의 없이 자유로운 사내 문화를 만
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 1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흰색 와이셔츠에 짙은색 정장 차림을 고집해왔다. 특히 현
대차그룹의 사무실을 찾으면 다른 기
업과 달리 딱딱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
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복장만으로 본
사 직원인지 외부 손님인지 알아차릴
정도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금요일 캐주얼 데이를 도입한데 이

어 이르면 이달말 노타이 복장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초 국내영업본부와 연구소 등 일부 부서에 한해 캐주얼 데이를 도입했으나 올해부터 본사 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어 하게 복장에서 동계 복장으로 바뀌는 추석 연휴 전후로 각 부서에 노타이 복장에 대한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직원들의 편안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타이 도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동계 복장으로 바뀌는 주석을 전후해 각 부서별로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지난 5월부터 연중 노타이 차림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쿨비즈 복장의 하나로 여름에 한해 허용됐던 노타이 복장을 일년 내내 가능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현대차의 이같은 변화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이 코나 론칭행사에서 청바지와 면티셔츠를 착용하면서부터다. 빠르게 급변하는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해서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내문화를 유지하기보다 젊은 직원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특히 현대차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부회장에 대해 소통을 중요시하는 리더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거 통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보수적이고 경직된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었지만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회장은 외부 인사 영입을 늘리고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면서 조직의 유연함을 강조하고 있다. 경직된 분위기가 자칫 창의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이어 업계에서는 한국타이어가 적극

적이다. 이는 청바지 등 자유로운 복장을 즐기고 패션에 관심이 높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의 영향도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1년부터 정시퇴근 캠페인, 캐주얼 프라이데이 등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환경 조성에 나섰다. 올해 7월 1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시 자율복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딱딱하고 보수적인 사내 문화 대신, 유연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극대화 차원이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000년부터 노타이를 기본 복장으로 했다. 근무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삼성전자는 2008년 ‘비즈니스 캐주얼’을 기본으로 하는 복장 자율화를 선언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순수 독자기술로 후측방 레이더 국내최초 개발

현대모비스가 순수 독자기술로 자율주행 차량용 단거리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현대모비스는 2020년부터 해당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독자 개발한 고해상도 단거리 레이더는 후측방 충돌경고 시스템(BCW)의 적용되는 첨단 기술이다. 후측방 충돌경고 시스템은 주행 중인 차량을 뒤따라오는 뒷 차의 위치와 속도를 인식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주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이다.

이번에 개발한 레이더는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모비스는 해외 경쟁사 레이더보다 속도는 배,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최소 거리는 1.5배 이상으로 향상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무게도 절반가량인 120g으로 줄이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다.

경쟁력을 갖춘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면서 해외 업체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 연구원이 레이더 등 자율주행 센서가 장착된 자율주행 테스트카 엘빌리(M.Billy)에 탑승해 시험 운전을 하고 있다.

다. 이는 곧 가격 경쟁력과도 연결된다.

현대모비스는 단거리 레이더 기술 확보에서 나아가 올해 안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레이더 4종을 모두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성능 전방 장거리 레이더 등은 독일 레이더 설계사 2곳과 협업해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는 장거리 레이더 1종, 중거리 레이더 1종, 단거리 레이더 2종 등 모두 4종의 자율주행 레이더 기술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 탐지거리로 구분되는 레이더의 모든 제품군에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현대모비스는 설명했다. 이들 레이더는 2021년까지 양산차에 순차 적용한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그룹 찾은 구이저우성 쑨즈강 대표단

中 빅데이터센터 활용 미래차 협력 논의

쑨즈강 서기 일행 남양연구소 방문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19일 오후 중국 구이저우성 쑨즈강 서기와 대표단이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이저우성은 빅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중국이 국가 빅데이터 종합시험구로 선정(구이안신구)하고 각종 우대정책을 펴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 방문 행사에는 쑨즈강 서기뿐 아니라 안지우승 구이저우성위원회 부비서장, 마닝위 구이저우성정부 부비서장, 지홍 상무청 청장 등이 동행했다.

현대차그룹에선 연구개발본부장(중국 상품담당) 권문식 부회장, 중국사업본부장 이병호 부사장 등이 이들을 맞이했다.

이날 현대차그룹과 구이저우성 정부는 ▲구이저우성 경제발전 현황 공유 ▲현대차그룹 사업현황 소개 ▲구이저우성 빅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쌍방 사업 확대



현대차그룹 환경기술센터장 이기상 전무, 귀주성 상무청 청장 지홍, 귀주성정부 부비서장 마닝위, 귀주성위 부비서장 안지우승, 귀안신구 당공위 부서기 쑨명평, 귀주성위 서기 쑨즈강, 현대차그룹 연구개발 본부장(중국상품담당) 권문식 부회장, 중국사업본부장 이병호 부사장, 귀주성 화신직접회로사업투자 유한공사 오우양우(왼쪽부터)가 남양연구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이저우성 대표단은 남양연구소 주요 시설을 돌아보고 현대차그룹의 기술력이 집약된 고성능·친환경차를 체험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6년 말 구이저우성 정부와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9월 구이안신구 디지털 경제산업원 내 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센터는 올해 초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국 시장과 상품성 분석은 물론 커넥티드카 서비스 현지화 개발,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의 협력 고객 분석 데이터 확보 등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방한한 쑨즈강 서기 일행은 현대차그룹, 삼성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세종시 등 정부기관 담당자를 만나며 양국 우호 협력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삼성SDS,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사업 강화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2018 개최
플랫폼 기반 다양한 솔루션 선봬

삼성SDS는 20일 잠실 캠퍼스에서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2018’를 개최하고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삼성SDS는 ▲클라우드 보안관제 서비스 ▲클라우드용 통합 인증 서비스 ▲클라우드용 암호기술 등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클라우드 보안솔루션을 선보였다.

클라우드 보안관제 서비스는 삼성SDS가 20여년간 축적한 수많은 해킹 위협정보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웹해킹 탐지 모델로 다양한 클라우드 해킹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클라우드 기반 통합인증 서비스는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내는 물론, 외부 시스템인 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증, 계정관리, 이상징후 탐지 등이 통합된 인증체계를 제공한다.

SECaas는 방화벽, Anti-DDoS, 악성코드탐지 등의 보안SW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삼성SDS의 보안관제 서비스와 결합해 고객이 클라우드를 더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게 해준다.

삼성SDS는 이와 함께 클라우드 암호키 해킹을 원천 차단하고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클라우드용 DB암호화 기술과,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작업없이 바로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동형암호기반 머신러닝 기술도 소개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SKT ‘0캠퍼스’ 2주만에 이용자 4만명 돌파

SK텔레콤의 ‘0캠퍼스(영 캠퍼스)’ 이용자가 1000명을 돌파한 학교가 탄생했다. SK텔레콤의 ‘0’은 신세대를 위한 1020세대 컬쳐브랜드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0캠퍼스는 서비스 시작 2주만에 이용자 4만명을 돌파했다. 캠퍼스별 순위변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이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다.

SK텔레콤은 가장 먼저 0캠퍼스 이용자 1000명을 넘어서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19일과 20일 각각 방문해 ‘0캠퍼스 간식’을 제공했다. 각 학교 홍보대사들은 SK텔레콤이 준비한 1000개의 간식박스를 나눠줬다. 캠퍼스별 이용자 순위는 영한동 홈페이지에서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0캠퍼스는 SK텔레콤이 지난 4일 발표



한 2020 세대를 위한 ‘0라이프’ 혜택 중 하나다. 캠퍼스 전용 데이터 월 1GB, 클라우드 베리 100G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전체 재학생 중 0캠퍼스 이용 비중이 늘수록 받는 혜택이 늘어난다. 전체 재학생 중 이용자 비중이 20% 이상이면 캠퍼스 전용 데이터 월 2GB와 클라우드 베리 200GB, 30% 이상이면 데이터 월 3GB와 클라우드 베리 300GB가 제공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롯데오토옥션

‘3-레인 시스템’으로 車 3대 동시 경매 진행

롯데오토옥션이 국내 최초로 ‘중고차 3-레인 시장’을 도입했다.

20일 롯데오토옥션에 따르면 차량 3대의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으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경매 진행이 가능하다.

롯데오토옥션 관계자는 “2015년 10월 2-레인 경매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후 중고차 경매 운영 효율성과 회원사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3레인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3-레인 경매 시스템도 입으로 1개 레인 경매방식 대비 경매시간이 약 70%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롯데오토옥션은 짧은 시간 내 경매할 수 있는 중고차가 늘어남에 따라 1회당 최대 경매 출품대수를 기존 1200대에서 1600대까지 확대했다.

/양성운 기자